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 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두 가지 만나 I

(요 6:48-51)

이종윤 원로목사

본문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만나는 얼마 동안 내려오다가 끊어진 떡이요 매일 먹어야 하는 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지를 았았더라.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곧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48절)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6장은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계시하는데 6장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나는 그런 만나가 아니고 생명이이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여러 번 인용하셨습니다.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광야의 뱀, 또 만나를 주신 사건을 인용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예표로 설명을 하시며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며 오신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를 육신을 보존시켜 주는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가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은 죽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만나는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꼭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요구할 때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으나 있으면서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린이의 요구와 어른들의 입장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사랑이나 과자를 주지 않았다고 그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나의 요구보다 내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나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을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

옥의 자녀가 됩니다. 애지중지한 자식이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한 분이라도 예수 없이는 지옥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생명떡은 아버지께서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입니다. 이 떡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떡이라고 했습니다(35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51절 하)

예수님의 몸이 생명떡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으라는 말은 십자가 사건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평화가 오고 나음이 오고 생명도 얻고 부활도 생기고 칭의도 받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게도 되고 사랑함에 이르게도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 생명떡이 곧 주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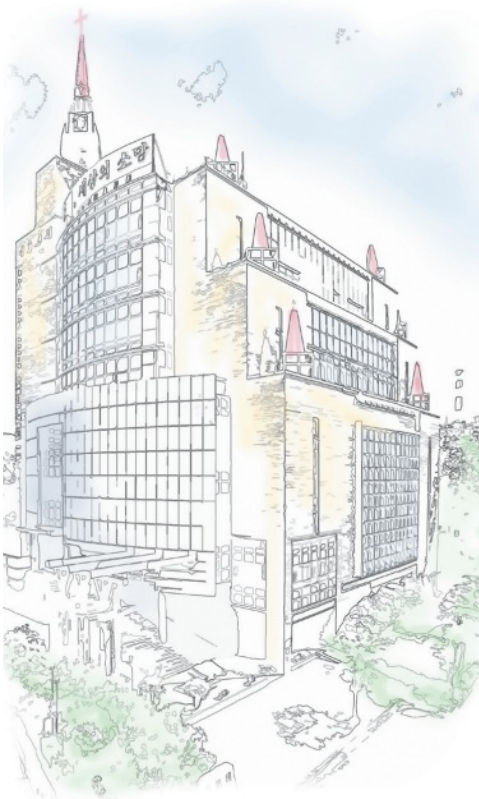
2.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51절 상)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신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떡을 먹으라고 요구하십니다. 먹으라는 말은 믿으라는 말입니다.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연합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찬식에서 떡을 받아먹으라고 합니다. 먹는다는 말은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인간이 살려면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먹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떡을 먹어야 합니다. 또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람은 언제 먹고 싶어집니까? 배고플 때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말씀의 떡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자라 했습니다(마 5장).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생수를 찾게 되어 있고 영적으로 배고픈 자가 생명떡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손달의 목사 제3대 담임목사로 청빙되다

그동안 서울교회 성도들 모두가 후임목사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여 온 가운데 지난 주일 찬양예배 후 개최된 제직회에서는 당회가 추천한 손달의 목사를 제3대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제 손달의 목사는 서울강남노회의 청빙 허락을 받는 대로 정식 서울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하게 되고 우선 중직자 선출 공동의회가 개최되는 오늘 저녁 찬양예배 시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흥해작전을 바로 앞둔 다음 주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일설교도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주일설교를 맡아 수고하신 서창원 목사는 협동목사로 남아 계속 서울교회의 필요한 사역을 돕게 된다.

남은 교회회복 과정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① 제직회를 준비하다.
- ② 안인호 장로의 개회기도
- ③ 투표를 시작하다.
- ④ 스테반회장 김광태 집사, 권사회장 김선영 권사의 개표
- ⑤ 청빙배경을 설명하는 임상현 장로(당회 서기)
- ⑥ 투표결과를 발표하는 임시당회장 강희창 목사

오늘 제15대 안수집사, 제14대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

- 찬양예배 직후 -

당회는 서울교회 운영규정 제5조 3항에 따라, 안수집사는 임직일 기준 만 35세, 권사는 만 50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봉사경력, 정규 공예배 출석상황, 심일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 및 교회등록순서와 연장자 순 등을 고려하여 대상과 순위를 정하여 지난주일 제15대 안수집사, 제14대 권사 후보 명단을 배포한 바 있고, 공고한 대로 오늘 찬양예배 직후 그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한다.

공동의회에는 서울교회 정식 등록교인으로 공동의회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공동의회 회원은 오늘 찬양예배 전 본당 2층 로비에 성씨별 가나다순으로 구분된 테이블에서 자격확인하고 함께 투표지와 펜을 교부 받은 후 미리 배포된 후보명단을 잘 살펴보고 공동의회 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기표하면 된다.

예년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피택인원을

미리 제한하지 않고 총회 헌법과 교회 규정에 따라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하는 후보는 모두 서울교회 안수집사 또는 권사로 피택하기로 하였다.

오늘 피택이 되는 후보들은 소정의 임직 훈련을 거쳐 오는 11월 설립주일 오후 찬양예배 시 안수집사와 권사로서 임직을 하게 된다.

당회는 교회 분쟁 전 이미 공동의회에서 안수집사 피택을 받고 훈련까지 마쳤으나 사정 상 임직식에만 참석하지 못했던 김동진1 집사(3교구)에 대하여는 별도의 교육훈련 없이 위 임직식에 참석하여 함께 임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회회복을 위하여 할 일 많은 서울교회에 주의 신실하신 일꾼들이 최대한 많이 피택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제57회 한국기독교학술원 학술공개세미나

5월 24일(월) 오후 2시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 이종윤 원로목사)은 제57회 한국기독교학술원 학술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COVID-19가 불러온 비정상·비대면 시대와 한국교회의 전망"이며 5월 24일(월)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이상규 박사(고신대 명예교수), 박흥규 박사(전 침신대 교수), 노영상 박사(총회 한국교회연구원 원장), 이승구 박사(합신대 교수), 김의창 박사(햇빛트리니티 신대원 교수)가 발제하고 이종윤 원장의 인도로 패널 토의를 통해 한국교회가 가야할 길을 제시한다. 이날 경건회 설교는 손달의 목사가 담당하며 참석하시는 분들께 주제는문집을 드린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강림주일

오늘은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첫 곡식을 감사하는 절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곡식을 감사하는 이 절기는 유월절 이후 50번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또한 '칠칠절'(출 34:22)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초실절에서 7주가 지난 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순절은 첫 곡식을 추수하는 감사의 예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위하여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뻐하며 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영혼과 정신을 새롭게 출발시켜 주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던 감사의 절기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의 첫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던 때(행 2:1-41)를 기념하는 절기로 승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의 회중들에게 유대의 전 역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성취된 것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선포하는 능력있는 설교를 하였을 때 3천 명의 회심자를 얻는 역사적인 선교의 장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은 교회가 메시아의 완성된 시간의 상징으로 지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편집부)

만민에게 전도 - 인도 선교보고

개척하고 이양한 나가나할리교회까지 번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서울교회와 당회, 선교위원회, 성도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COVID-19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저희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인도 상황은 COVID-19의 3중 변이 VIRUS가 창궐하여 하루에 35만 이상 감염자가 나오고 하루 사망자도 2,000명이 넘었습니다(21년 4월 29일 상황).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병실과 산소통이 부족하고 의료체계는 붕괴직면에 처하게 되었고, 병실이 부족하여 호텔을 임시 병실로 개조 및 사용을 승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도 주재 한인도 여러 명이 별세하였고 1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 인도 첸나이 영사관 직원들도 감염되어 영사 업무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하였으며 당분간 공항 및 항만도 폐쇄되었습니다.

저희가 개척하여 이양한 나가나할리 교회 이삭 목사님이 COVID-19 VIRUS에 감염되어 병실이 없어서 자가 치료 중 증상이 심하여서 급히 중환자실로 입원하여 집중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삭 목사의 딸(krupa)도 감염되었지만 증상이 호전되어 집에서 자가 치료받고 있습니다. 니모처나교회(비스타파 목사)와 딘네교회(사지 목사)도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삭 목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현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주 사역지인 시골마을 치그라푸라 아가페 센터의 사역은 아가페교회의 지바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며 마을을 방문하고 전도 및 심방을 하고 있습니다(현재는 방문 금지). 아가페 학교는 고학년은 정상수업을 하지

만 저희 학교는 유치원과 초등학생인 저학년이라 전화수업이나 가정방문 수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주간 Lockdown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COVID-19 확진자 수가 현재(21년 4월 29일 상황) 세계 2위로 18,754,984명입니다. 인도의 소외지역과 저소득층 백성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으며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심지어 마을 공터에서 화장을 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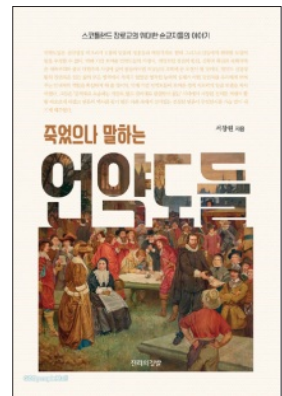
인도와 대한민국, 전 세계가 코로나가 종식되고 안정되어 예배와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상식 선교사 · 김정옥 선교사 올림

기도 제목

1. 아가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2. 아가페 유치원, 아가페 학교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3. 인도 동역자(목회자)를 위해서!
4. 치그라푸라 마을, K.G 꼬떼 마을, 폐담팔리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5. 나가나할리교회, 니모처나교회, 딘네교회, 그레이스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6. 아가페 학교 2층 증축 공사 완공을 위해서!
7. 인도의 COVID-19 3중 변이 VIRUS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8. 한국과 인도, 전세계의 COVID-19가 소멸되어 예배와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9. 서울교회의 예배 회복과 정상화, 부흥성장을 위해서!
10. 우상식 · 김정옥 선교사의 사명 충만과 성령충만한 삶을 위해서!

신간 서적 안내



우리 교회에서 현재 주일설교를 담당하고 있는 서창원 목사(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의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위대한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엮은 '죽었으나 말하는 언약도들'이 출간되었다.

언약도(The Covenanters)들은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진리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뱃속 깊이까지 철저하게 장로회주의자들이었고 장로교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오늘날 교파 간의 경계선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장로회주의자라는 말이 그리 대단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장로교는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진리였다. 장로회주의 원리가 성경적이고 개혁신학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물론 그들은 완전한 자들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잉글랜드의 청교도들 못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일치하는 삶을 살기를 열망했던 자들이었다.

언약도들이 자신들의 삶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데서 정립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선포와 가르침과 심방이라는 목회사역에서 그들의 모범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언약도들과 같이 같은 성경을 소유하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서는 그러한 효력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가에 관한 의문점을 언약도들이 확실하게 해결해 줄 것이다.

좀 더 언약도들에 관해 알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사무국에서 구입하기 바란다.

2021년도 서울교회 제14대 권사 선거 후보 내용 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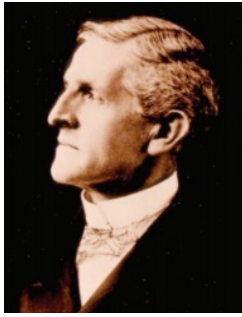
- 2번 박한옥 - 교구간사, 다락방장
- 23번 최정숙 - 호산나, 부다락방장, 출판국, 갈렙
- 43번 박정애 - 호산나, 다락방장
- 60번 남은희 - 임마누엘
- 62번 김미선 - 등록연도: 1991 수세연도: 1992
- 79번 허미옥 - 1956년생
- 89번 이해경 - 1교구



천국시민 양성 - 신앙강좌반

우리말 성경의 역사 5

- 구약(舊譯)성경 - 최초의 공식적인 번역 성경



▲ 1902년, 성경번역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목포로 가던 아펜젤러 목사 순교

- <한글 사용>**
- 1443 세종대왕 한글 창제
 - 1446 세종대왕 한글 반포
 - 1896 독립신문 (처음 한글 전용)
 - 1906 이인직 '혈의 누', '귀의 성' (한글 사용했으나 한자어를 음독함)
 - 1908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에게' (한글로만 시를 씀)
 - 1918 이광수 '무정' (순수한 우리말의 어휘와 표기, 처음 대중적으로)
- * 한글 사용에서 우리말 성경은 사회를 훨씬 앞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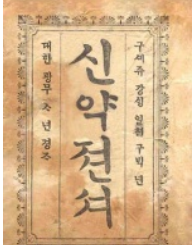
결성한다. 이는 현재의 “대한성서공회”의 전신으로 지금까지 유일한 공식기관이다.

조선어 성경번역위원회는 성경 번역 작업에 매진하였고, 결국 1900년 신약성경 전체를 번역 완료하여 <신약전서>를 출간하였다. 이것은 로스역 <예수 성교전서>(1887) 이후 두 번째 신약의 완역본이자, 최초의 공식 번역이다.

곧이어 1900년부터 구약성경 번역 작업에 착수하였다. 번역 작업은 많은 수고와 희생을 동반한 지난한 작업이었다. 1902년 6월 성경 번역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목포로 가던 아펜젤러가 순교하기도 했다. 그리고 언더우드, 게일, 레널즈는 1902년 10월부터 1906년 3월까지 모두 555회의 모임을 가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1910년 4월 구약 전체가 번역 완료되었고, 이것은 이미 번역 완료된 신약과 합쳐져서 이듬해인 1911년 3월 <성경전서>로 출간되었다. <성경전서>는 출간되자마자 <구약(舊譯)>으로 지칭되었다. <성경전서>가 번역 면에서 볼 때 미비한 점들이 많아서 이를 개정하는 작업이 곧 시작되었는데, 개정 작업에서 <성경전서>를 <구약(舊譯)>으로 지칭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 번역의 초창기와 발전기에는 기독교가 한글 사용에 있어서 사회를 훨씬 앞서 있었고, 서민들에게 쉬운 한글이 대중적으로 보급되는데 선구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초기 천주교는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았다. 당시는 한글을 천시하던 분위기였고, 주로 양반 중심이었던 초기 천주교 신자들은 중국에서 가져온 한문 성경을 읽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요약정리: 김애리 집사(편집부)



1900년 <신약전서> 출간



1910년 4월 2일 <구약전서> 출간



1911년 <성경전서> 출간
신구약 모두 3권으로 출간된 최초의 성경

우리말 성경이 번역된 역사의 초창기는 개인역시대라고 할 수 있다. 1882년 로스 번역을 시작으로 이수정 번역도 개인 번역이었다. 국내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우리말 성경이 필요했다. 1887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이수정 본의 수정본인 <마가의전한복음서언해>를 내놓았다. 이후에도 1890년 아펜젤러 <보라달로마인서>, 1891년 펜윅 <요한복음전>, 1892년 아펜젤러 <마태복음전>, 게일 <사도행전>, 1893년 펜윅 <약한의 기록한대로복음(요한복음)>의 개인 번역으로 이어졌다.

다음 시기는 발전기로서 위원회역시대라고 할 수 있다. 초창기 선교사들은 조선에 하나의 교단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은 결렬되고 말았다. 결렬된 후 선교사들은 조선에서의 선교가 교단별로 이루어질 텐데, 그렇다면 모든 교단이 한양에만 선교를 집중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조선을 네 지역으로 구분한 후 각자 맡은 지역으로 흩어질 것을 합의하였다. 미국 북장로교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을, 캐나다 장로교는 동북지역, 미국 남장로교는 호남지역, 호주 장로교는 영남지역을 맡게 되었다. 조선에 하나의 교단을 세우려는 노력이 실패한 후, 선교사들은 교단을 불문하고 성경만큼은 반드시 하나여야 한다고 공감하여 1887년 2월 7일 “조선어 성경번역위원회”를

동정

- 떡 제공 : 9교구 지성철 집사 · 유요종 권사 가정 -자녀 결혼 은혜 중에 마치고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5월24일	월	느 8-10		눅 1-2	
5월25일	화	느 11-13		눅 3-6	
5월26일	수	에 1-3		눅 7-9	
5월27일	목	에 4-10		눅 10-12	
5월28일	금	욘 1-3		눅 13-17	
5월29일	토	욘 4-7		눅 18-21	
5월30일	주일	욘 8-10		눅 22-24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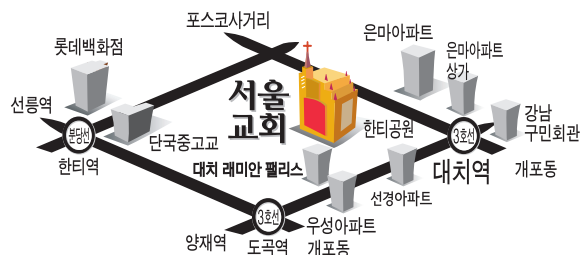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담임목사로 청빙된 손달익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2. 오늘 있을 향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3.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 주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